

# 일지역 성인의 흡연여부, 건강평가, 금연자기효능에 대한 연구

강경숙\*, 박미경\*, 김남영\*, 고영숙\*\*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광양보건대학 간호과)

본 연구는 일지역 성인의 흡연여부, 건강평가, 금연자기효능을 조사하고 흡연여부에 따른 건강평가와 금연자기효능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성인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이며, 자료수집은 D군에 소재하고 있는 20-59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2004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대상은 총 694명이었다.

측정도구로 연구대상자의 건강평가 도구는 0점에서 100점까지의 시상상사척도를 사용하였다, 금연자기효능 측정도구는 Aas 등(1995)이 개발한 5문항 4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는 0.948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는 남성 503명(72.5%), 여성 191명(27.5%)이었고, 연령은 40-49세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응답자의 51.3%가 생산직이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는 대상자 중 46%이었으며, 음주횟수는 월 1-3회가 65.%로 가장 많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여부를 확인한 결과, 흡연자는 남성의 경우 60.8%, 여성의 경우 6.8%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흡연자는 종교가 없는 경우, 술자리 횟수가 많은 경우에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평가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미혼이 기혼자보다 더 높았으며,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자기효능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금주한 경우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흡연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평가는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흡연여부에 따른 금연자기효능은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지역 성인의 흡연인구는 46%로 여전히 높았으며, 흡연은 성인의 건강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흡연자는 자기효능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1. 성인의 흡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변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금연과 건강을 주제로 한 내용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본다.
3. 금연자기효능을 높일 수 있는 금연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성인, 흡연, 건강평가, 금연자기효능